

한-터키 총리 공동기자회견, 이낙연 국무총리 모두발언

- 2017.12.6. 정부서울청사

【 인사 말씀 】

먼저 「비날리 일드름」 총리님과 터키 대표단 여러분들의 한국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특히, 양국 수교 60주년이자 '상호 문화의 해'인 올해 혈맹 우방이자 형제국가인 터키의 총리님께서 방한하신 것은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 양국 관계 】

오늘 「일드름」 총리님과 저는 2012년에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로 격상된 한-터키관계가 매우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양국 정부는 기존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협력의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실질 협력 】

우리 두 총리는 2013년에 발효된 한-터키 FTA 상품 협정이 양국 교역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FTA 서비스 투자 협정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해서, 양국이 호혜적이고 성숙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작년에 성공적으로 준공된 「유라시아 해저터널」과 「보스포로스 제3대교」 건설 사업을 양국 기업의 성공적 협력사례로 평가하면서, 「차낙칼레 대교 건설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터키정부의 '국가비전 2023' 구상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고속철, 해저터널, 운하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정부는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제도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북핵 문제】

저는 터키정부가 한국전 참전 우방으로서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은 11월 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맺음 말씀】

오늘 「일드름」 총리님과의 회담은 향후 양국이 나아갈 협력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터키가 상생과 공영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